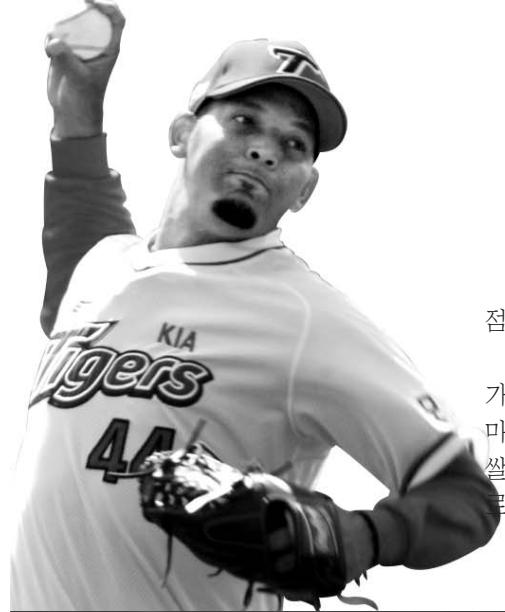


KIA 황금 마운드 본무대만 남았다



윤석민·로페즈·양현종·서재웅 리허설 'OK 사인'

롯데와 전훈 마지막 연습경기서 릴레이 완봉투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캠프 마지막 전력 점검을 받았다.

KIA 타이거즈가 2일 일본 가고시마 가모이케구장에서 롯데 대자연초와의 캠프 마지막 연습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는 쌀쌀한 날씨 속에 6회까지 진행됐으며 0-0으로 양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미리보는 선발진'이 관전 포인트였다.

윤석민이 가장 먼저 등판해 1이닝을 소화했고 이어 로페즈, 서재웅, 양현종이 차례차례 마운드에 올랐다. 새 용병 트래비스를 제외한 5선발 후보가 모두 마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을 시즌 KIA 마운드의 조커로 주목받고 있는 박성호도 등판해 캠프 성과를 점검받았다.

쾌조의 컨디션으로 순항을 해왔던 KIA 마



2일 일본 가고시마 가모이케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연습경기에서 KIA 이범호가 4회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를 시도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운드는 최종 점검 무대에서도 OK 사인을 받았다.

'최고의 한해'를 시즌 목표로 내세운 윤석민은 첫 타자 이인구에게 볼넷을 내주기 위해 2번 김문호와 3번 정정보명을 우익수 플레이로 잡아냈다. 마지막 상대였던 이승재를 삼진으로 끌려 세운 윤석민은 직구 최고구속 146km를 찍는 등 스프링캠프 마지막 등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서히 전력을 끌어왔던 로페즈도 전지훈련 첫 등판에 나섰다. 지난해와 달리 원터치 그를 뛰지 않고 전력을 비축해왔던 로페즈는 지난달 24일 불펜 피칭 이후 처음으로 마운드에 섰다. 1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한 로페즈는 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이라는 첫 등판 성적표를 제출했다.

좌완 에이스 양현종과 '빅리거' 서재웅도 피안타 없이 2와 3분의 1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냈다. 1이닝을 던진 박성호는 6타자를 맞아 2개의 안타를 내주기는 했지만 삼진 세개로 이닝을 종료하면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KIA 마운드의 순항이 이어졌지만 타선은 여전히 무딘 모습을 보여줬다.

타자들은 4회까지 마운드를 책임진 롯데 선발 김수완에게 2개의 안타와 볼넷 3개를 뽑아냈지만 접수를 얻는데는 실패했다. 6회까지 KIA 타자들이 만들었던 안타는 3개.

하지만 외야수 신종길은 안타행진을 이어가며 주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전지훈련에서 페로의 타격감을 보인 신종길은 마지막 연습경기에서도 안타 추가, 자체홈런 포함 12번의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0.400의 타율을 기록했다.

한편 KIA는 3일 오전 훈련으로 스프링캠프 일정을 끝내고 4일 귀국길에 오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교체의 격랑에 빠져들었다.

◇번방으로 밀린 일본 = 일본바둑계는 제3회 비씨카드배 본선 64강에 출전한 두 명의 기사가 모두 회전에서 탈락하면서 공황에 빠졌다.

1월 28일 열린 64강전에서 조치훈 9단은 중국의 엔환 5단에게 사가이 히데유키 8단은 44세의 노장 유장혁 9단에 패했다. 역대 최악의 성적이다. 2006년 이후 일본은 LG배, 삼성화재배, 비씨카드배 등 오픈예선을 하는 대회에 13차례 출전해 단 5명만이 예선을 통과했다.

321명이 선발된 가운데 5명이 예선통과 확률은 1.5%에 불과하다. 1960년~1980년대 초반까지 현대바둑의 트네상스 시대를 연 나라로서는 믿기지 않는 성적이다.

◇'호랑이' 이세돌의 독주 = '센들'이 세돌은 32강전에서 중국의 쑐니 4단에게 역전승하며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지난해에도 복귀무대가 된 비씨카드배 첫판에서 아마추어 이주형에게 고전 끝에 승리한 후 여세를 몰아 우승까지 차지했다. 조반포석이 약점으로 지적되는 이세돌이 라이벌 풍재, 구리 등의 부진 속에서도 독아청정하는 것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과 상대를 단숨에 제압하는 뛰어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세계바둑계가 이세돌과 최철한으로 대표되는 한국군과 저우위양의 중국세력이 힘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엔씨소프트 창단 이달내 마무리

프로야구 제9구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온라인 게임·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엔씨소프트가 이달 내로 창단 작업을 마무리짓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일 "비공개 면접을 통해 단장부터 확정한 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신생구단 창단 논의의 일정에 맞춰 3월 내로 창단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KBO는 오는 8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8개 구단 단장들이 모이는 실행위원회를 열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한 9구단 선수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2일께 8개 구단 대표들로 이뤄진 이사회에서 창단 절차를 매듭짓고 일주일 뒤인 29일께 최고 의결기구인 구단주총회를 열고 엔씨소프트의 9구단 창단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엔씨소프트는 현재 신생구단의 밀그림을 그릴 실무 책임자인 단장을 선임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대외협력 흥보담당 상무는 "기존 구단에서 단장을 역임하셨던 분 중 5명을 새 단장임원 면접 후보로 추렸다"며 "이 중에서도 적임자를 압축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 비공개로 면접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피겨여왕 김연아 20일 日 도쿄 입성

세계선수권 대회 출전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오는 21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하는 2011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외활동을 본격 재개한다.

김연아의 매니저먼트사

인 올댓스

포츠는 2

일 "김

연아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주최하는 세계피겨선수권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일본으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연아는 이 대회를 마치고 28일 귀국해 아이스 쇼를 준비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난 10월 피터 오피가드(52·미국) 코치를 선임한 이후 외부활동을 접고 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매진한 김연아가 공식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년 만이다.

김연아는 이 대회가 끝나면 올 5월 예정된 아이스 쇼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김연아는 이와 관련, 올 4월 런던에서 열리는 스포츠아코드 국제컨벤션과 5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후보도시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른 일정을 놓고도 평창유치위원회와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 도박 판돈 年 1400조 달러"

로케 IOC 위원장 척결 논의

스포츠 경기 결과를 놓고 불법적으로 벌이는 도박판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00조 달러(약 157경8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AFP 통신은 2일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의 말을 따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몰리는 돈이 연간 1400조 달러인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했다.

로게 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각국 정부와 스포츠 단체, 인

터풀, 베팅업체 대표들과 만나 스포츠 부문의 불법 도박을 척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각 단체는 스포츠 도박 규모가 겹칠 수 없이 확대됐다고 보고 조속히 특별조사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로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서 "연간 규모가 1000조 달러 이상인 스포츠 도박판은 올림픽뿐만 아니라 스포츠 전체를 망가뜨린다"며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과 탈법을 오가는 스포츠 도박은 승부조작으로 이어져 스포츠의 신성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암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신선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문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품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だい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 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 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